

# LG전자, 문화재청과 韓문화유산 보호 나선다

## 경복궁 관리소에 코드제로 A9 기증

LG전자가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한다고 10일 밝혔다.

LG전자와 문화재청은 8일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알리는 데 협력하기로 하고 경복궁에서 후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LG전자 대표이사 CEO 조성진 부회장, 배상호 노조위원장, 김종진 문화재청장, LG 코드제로의 광고모델인 여자 컬링팀 '팀 킴' 등이 참석했다.

이날 LG전자는 궁궐 마루를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코드제로 A9 5대를 경복궁 관리소에 기증했다. 코드제로 A9은 모터가 손잡이 부분에 위치한 상중심(上中心) 타입의 무선청소기다.

LG전자는 49형 디지털 사이니지 10대도



'팀 킴' 김선영 선수, 배상호 노조위원장, LG전자 조성진 부회장(왼쪽부터), 김경애 선수(오른쪽 끝)가 경복궁 경회루를 청소하고 있다. /LG전자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경복궁 대표소에 설치되며 관람객들은 주요 행사와 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LG전자와 문화재청은 올해 11월 영국 피

커딜리 광장에 있는 LG전자 전광판에 한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7서울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새로 나온 책

### 서커스 나이트

민음사/요시모토 바나나 지음



일본 현대 문학의 대표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가 신작 소설을 출간했다. 의문의 편지와 함께 시작되는 이 책은 코지 미스터리처럼 기묘한 궁금증을 일으킨다. 편지의 진실과 이에 연관된 과거의 이야기가 요시모토 바나나 특유의 서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서히 밝혀진다. 대자연의 힘과 발리의 매력이 가득 담긴, 뒤죽박죽인 가족 구성원이지만 서로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사람들의 잔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다.

정령이 가득한 나라 발리에서 불가사의한 존재들과 함께 성장해 온 사야키는 사물을 만지면 그와 관련된 기억이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일명 사이코메트리다. 성인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발리에서 성장해 자유롭게 발리에서 성장했던 그녀지만 뜬금없이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한 지인으로부터 아이를 낳아 달라는 엉뚱한 부탁을 수락하여 일본에 머물고 있다. 시부모님 집의 2층에서 어린 딸 미치루와 나름 평온하게 지내고 있는 사야키의 일상을 깨는 기묘한 편지가 도착한다. 맥의 마당에 소중한 무언가가 묻혀 있으니 조금 파내도 되겠냐는 내용인데, 더 놀라운 것은 보낸 사람의 사야키의 옛 연인 이치로라는 것. 사야키는 몰래 마당의 흙을 파 꾸러미 하나를 발견한다.

417쪽, 1만4000원

/신정원 기자 sjw1991@

## 코트라 ICT 스타트업 해외진출 돕는다

코트라(KOTRA)가 지난 8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ICT 스타트업 해외진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KOTRA 베이징 IT지원센터에 입주해있는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 개발사 이에스이의 이창호 전무는 "작년 중국 헤비이성 당산시 스마트시티 통합 관제시스템 수출사례



권평오 KOTRA사장(왼쪽 7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OTRA

럼 개별 기업의 힘으로는 만나기 어려운 해외 투자가, 전문가와의 연결에 코트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평오 KOTRA 사장은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계속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964@

## 자존감이 바닥일 때 보는 책

프사케야쓰/너 세나일 브랜드 지음



일상에서 불현듯 찾아오는 우울감은 심각할 경우 신경과학의 처방을 필요로 하지만, 대개는 심리적인 차원, 마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저자는 자존감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 차분히 설명한 다음, 여성들이 실제 삶 속에서 자주 직면하는 여러 고민 사례와 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적절한 거리감의 중요성과 화를 표현하는 법, 불안감을 다루는 방법 등을 다정하게 일러준다.

200쪽, 1만3000원

/신정원 기자

## 오늘의 운세

6월 11일 (음 4월 28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기대만큼 크게 성과가 없는 날이다. 60년생 시작이 반이니 바로 시작 해 보는 것이 좋겠다. 72년생 변화의 날이다. 옷차림에 신경 써 보자. 84년생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 소**  49년생 가족의 화목이 우선이니 배우자에게 신경 쓰자. 61년생 신세 진 사람에게 빚 갚을 일이 생긴다. 73년생 다다익선이라 많을수록 좋다. 85년생 아랫사람과의 인간관계로 고민할 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
- 호랑이**  50년생 자손의 건강과 행복이 나의 미래와 희망이다. 62년생 충동적 소비를 자제해야 하는 날. 74년생 표정관리를 잘 해야 하는 날이니 주의. 86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해야 실수가 없다.
- 토끼**  51년생 주변의 김 씨가 도와주는 날. 63년생 그냥 지나친 사람이 은인일 수 있으니 정성으로 사람을 대하라. 75년생 창의력이 발휘되고 목표가 달성되는 날. 87년생 연인의 변심이 우려되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용**  52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늙는 게 아니라 성숙 되는 것. 64년생 받기보다 베푸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 76년생 인사가 만사이니 주변인을 잘 챙기는 것이 좋다. 88년생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하루.
- 뱀**  53년생 긍정적인 사고가 복을 부른다. 65년생 우물에서 송충 찾지 말고 매사에 순서를 정해야 한다. 77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나 기뻐할 수만 없다. 89년생 상대방을 배려하면 내가 존중받는다.

- 말**  54년생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낭패 본다. 66년생 멀리서 구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라. 78년생 시간이 돈이니 시간 활용 잘 하기. 90년생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 하는 것이 좋다.
- 양**  55년생 알아도 모른 척하고 상대방의 작은 실수는 덮어 줄 것. 67년생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하루이다. 79년생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91년생 결과를 재촉하지 말고 과정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 원숭이**  56년생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일이 뜻밖의 기쁨을 준다. 68년생 적당한 경쟁은 발전의 요소이다. 80년생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자. 92년생 물고기 물결 만난 격이니 그동안 미뤄뒀던 일을 시작하자.
- 닭**  57년생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되는 법. 69년생 진인사대천명이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라. 81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하는 날. 93년생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
- 개**  58년생 집안일은 자녀와 의논해서 결정하라. 70년생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 질 수 있는 날이다. 82년생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자랑해도 좋다. 94년생 비가 온다고 밖에 나가지 않으면 우산이 필요 없다.
- 돼지**  59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주의. 71년생 경험자나 연장자에게 조언을 구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83년생 무리하지 말고 형편과 능력에 맞출 것. 95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 운이 좋은 날.

#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7					8	1
		3	5		4	9	
							4
			9	8			
9	1		2	3			7
			7	6			
4							8
	6	8		1	2		
	5						4

2						1	4
9	1	4		8		3	
			4		1		7
	4			1		5	6
8	7		2		9		
				7		6	
			3	5	4		
				1			5
8	6					4	7

스도쿠 정답								
9	7	1	6	2	3	8	5	4
5	2	3	1	7	8	9	6	4
8	6	2	5	9	7	1	3	4
6	1	8	9	5	2	7	4	3
2	9	5	2	7	1	8	6	9
3	7	8	1	6	2	4	5	9
7	5	2	9	1	6	2	8	
2	6	7	8	5	9	1		
1	8	9	2	6	4	7	3	5
4	2	7	6	1	9	8	5	3
6	2	5	8	2	9	1	3	7
1	8	9	7	5	6	2	3	4
2	8	9	7	2	5	6	1	4
7	1	6	5	2	3	4	9	8
9	5	2	6	1	8	7	3	4
2	6	2	1	8	7	5	9	
5	9	1	2	8	7	4	1	6
8	7	1	5	9	6	4	2	3

문제 제공= 보너스

## 김상회의 四季

### 운세 깎아 먹는 갑질

우리나라의 고전 소설인 '흥부전'을 보면 흥부와 정반대인 놀부가 나온다. 소설 속의 놀부는 부족할 것 없는 부자임에도 온갖 종류의 남을 괴롭히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초상난 데 춤추기 불난 집에 부채질하기 애호박에 말뚝 박기 비오는 날 장독 열기 놀부가 하는 짓은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런 짓들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지만 현실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갑질은 자기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괴롭히는 것이다. 갑질은 당하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비인간적으로 괴롭게 한다. 갑질은 천한 행동이고 갑질을 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다. 단 갑질은 재벌이나 대기업의 주인공들이 아니다. 사회전반에 이런 행태를 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주위에 보면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갑질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천한 행동으로 자기 사주를 타고 들어올 행운을 아쉽게도 꺾어버린다. 삼삼아 중에 재물 운 좋은 남자가 있었다. 남보다 노력을 덜 하는데 돈은 잘 벌었다. 그 남자의 특징은 갑질이다. 직원들에게 특하면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렸으며 인간적으로 무시하기를 다반사로 했다. 생계 때문에 버티던 직원들은 결국 다른 직장으로 옮기곤 했다. 그러던 중 참다못한 직원 한 사람이 세금 탈루 사실을 고발해버렸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은 회사의 공금횡령 사실을 신고했다. 결국 그 남자는 짧지만 교도소 생활을 했고 거액의 벌금을 냈다. 천한 행동으로 좋은 사주의 운세를 다 날려버린 셈이다. 석가모니는 '숫타니파타' 경전에서 천한 사람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작은 것을 탐내어 약탈하고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며 재산이 넉넉하면서 남을 괴롭히는 행위는 천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천한 사람이며 우주의 도둑이기에 대가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석가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요즘 말하는 갑질에 대해 경고를 한 셈이다. 태어날 때부터 천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은 자기의 이익을 탐내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 분명한 것은 지나친 탐욕과 포악한 성품이 좋은 운세를 꺾어버린다는 것이다. 좋은 사주의 영향이 평생을 가는 것은 맞다. 그러나 천한 행동을 하면 문제는 또 달라진다. 천한 행동이 가져오는 나쁜 기운이 사주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남을 사정없이 괴롭히고 누가 보아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운명조차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